

추상클래스는 말그대로 클래스이고, interface는 구현하기 전에 메소드에 대해 명세된 것일까?
그래서 상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스에선 상속이라고 쓰지만 interface는 implements(구현) 이라고 쓴다.

추상클래스의 정의는 abstract 메소드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클래스를 일컫는다.
때문에 일부는 구현된 메소드도 있고, abstract라고 붙어있는 메소드는 구현이 안되어있다

행심!

추상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메소드를 구현해야한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구현해야할 메소드가 있을 때 추상클래스를 쓰게된다.

인터페이스는 구현체 없이, 메소드에 대한 명세만 되어있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다 구현해야한다.

자바는 단일상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추상클래스는 단일상속이지만,
interface를 사용하게 되면, implements를 구현하는 부분에서 extends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즉, 다중상속이 가능해진다.

'이러이러한 메소드를 쓸 것이다.' 인터페이스에 선언을 해놓고, 가져다가 반드시 선언된 그대로 모두 구현하면 되는게 인터페이스

이고,
이러이러한 메소드가 있지만 가져다 쓰거나 오버라이드 하거나, abstract가 붙은 메소드는 반드시 구현하면 되는게 abstract class

구현이 되어 있는 메소드는
그냥 가져다 쓴다.